

## 미래로 이어지는 동산의 자연과 역사

오이가와 히로미

NPO법인 시시츠카(宍塚)의 자연과 역사의 모임

### 未来につなぐ里山の自然と歴史

及川 ひろみ

NPO法人 宍塚の自然と歴史の会

#### 서론

이바라기현(茨城県) 츠클바시(つくば市)에 인접하고 있는 츠클우라시(土浦市) 시시츠카(宍塚)에는 면적 약 100ha의 동산(里山, 사토야마 ; 이하, 동산)이 위치한다. 이 동산의 중앙에는 ‘시시츠카 큰연못(宍塚大池)’이라 불리는 약 3ha 규모의 「大」자형 담수지가 있다. 연못 주위에는 너도밤나무와 같은 이차림과 삼나무숲, 소나무숲 등의 조림지가 70ha의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우수와 숲에서 솟는 지하수가 이 연못의 수원이다. 면적에 비하여 긴 수변공간에는 호안공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폭이 좁기도 하지만 습지, 논, 밭, 초지 등도 점재하고 있어 매우 다양하고 수려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시시츠카 큰연못 주변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유적, 문화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국가지정사적인 가미다카츠(上高津) 패총, 시시츠카 고분군 등의 구석기시대, 죠포시대, 야요이시대, 고분시대의 유적이 점재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문화재 범종이 소장되어있는 한냐지(船若寺)가 입지하며, 근대 일상생활풍경을 보여주는 취락과 석조건축물 등 풍부한 역사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귀중한 지역이기도 하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귀중한 이 시시츠카 지역은 환경성 「특정식생군락」(환경청,1981), 이바라기현 「수림금지구역」(이바라기현,1982), 일본 문화적 경관 「농림수산업에 관한 문화적경관보호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의 중요지역(문화청,2003), 일본곤충학회 「곤충류의 다양성확보를 위한 중요지역」(일본곤충학회,2000), 이바라기현 「아이들 생생 자연체험 필드 100

선」(이바라기현,2003), 아사히신문사 「이바라기 자연100선」 등에도 선정·지정되어 있다.

이 시시츠카 지역을 대상으로 1989년 「시시츠카 자연과 역사의 모임」이 발족되었고 2003년에는 NPO법인으로 발전하였다. 본 모임의 기본 목표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동산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이 지역의 특징에 부합하는 형태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역의 보물을 계승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모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한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시시츠카의 자연과 역사의 모임」의 주요 활동

##### ① 동산의 현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되는 활동

현재, 동산이라고 불리는 경관은 사람들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처음 동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에 시작한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일본의 사회·경제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농촌경관이 급격하게 변모되어 훼손되면서부터이다. 그전에는 어느 곳에서든 접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되는 경우도 없었다. 우리 모임에서는 농촌경관에 동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관한 관리, 이용방법, 배경이 되는 삶과 농업, 문화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 취재(인터뷰) 활동

1989년 모임 발족당시부터 시시츠카의 지역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친 취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였다.

취재 중 어느 어르신이 「보로오비(ぼろ帯)」라고 칭하는 작업복 허리띠(자연소재로 염색한 실로 짜서 만든 두꺼운 허리띠)를 보여주었을 때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을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가혹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온 다양한 문화와 질 높은 개인 기술 수준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회수가 반복되면서 어르신들도 기억을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주기에 이르렀다. 농사일에 대한 세세한 것들, 옛날 놀이, 새끼줄, 짚신, 금줄 등의 제작법, 된장 및 납도(청국장) 제조법, 심지어 누에 실뽑기 등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새끼줄 꼬기를 배운 대학생들은 아이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최근 없어졌던 「아오야바시(靑屋箸 ; 음력6월에 역새젓가락으로 우동을 먹는 행사)」라는 전통행사를 부활시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을 수확제에서는 지역 먹거리 「누페(ぬっぺ)」를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참가자들과 함께 요리하는 행사도 추진하였다.

이렇게 취재를 진행하다보면, 40~50년전부터 삶의 양상이 크게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삶 속에서 만들어져 온 기초 지식과 중요 문화를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어디든 있을 법한 흔해빠진 시시츄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랑스러운 시시츄카」로 재인식되게 된다(그림2 「동산과의 삶」이 가져다 준 것들, 참조)

- 문헌자료, 지도, 항공사진, 고사진 등의 자료수집
- 사진, 녹음에 의한 기록  
옛 도구 등은 사진으로, 민요·창 등은 녹음으로 기록
- 성과 공표

당초에는 모임지에 성과를 게재하였다. 1999년에 취재 결과와 자료를 정리하여 「동산과의 삶 츠찌우라시 시시츄카 -인터뷰편」을 출판하고 2005년 2월에는 속편을 출판하였다. 「동산과의 삶 츠찌우라시 시시츄카 -인터뷰 속편」(이바라기현 중학교 추천도서)은 청취편, 테마편(농업용수, 산, 논과 경작, 밭과 작물, 주, 식, 의, 연중행사, 동식물), 자료편의 3부로 구성되어있다.

- 기록 서적의 보급 및 활용

지역, 학교, 도서관등에 배포하고, 서점에서도 판매되어 일반시민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1999년판은 현의 중학생을 위한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2005년판도 보급이 본격화되어 호평을 얻고 있다.

- 「어르신들이 말하는 시시츄카의 역사」 모임지에 게재

향토 츠찌우라시 추천 100선에도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노씨에 의해 77회 연재되었다.

## ② 동산의 자연 생태에 대한 조사와 보전방법을 모색하는 활동

츠클바 연구학원도시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연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물상, 철새이동, 침충(침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곤충류), 양서류, 식생, 버섯, 수질, 토양 등의 조사를 행하고 있다. 모든 생물의 생장기반이 되는 식물은 적어도 130과, 400속, 681종류(종 또는 변종)의 유관속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이것은 이바라기현의 약 1/3에 해당하며, 시시츄카가 관동평야 중에서도 매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시시츄카지역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에 발표하였다.

- 심포지움 개최

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동산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그 보전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한편 시시츄카의 가치를 국가관점에서 재인식하고, 동산의 보전을 위한 단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동산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 멸종위기종 가시연을 주제로 한 가시연 서밋(1992)
- 동산과 그 보전을 위한 연계방안을 도모하고자 한 동산 서밋(1993)
- 야쓰 논외 고차포식자를 주제로 한 침충 서밋(1994)
- 「동산에 있는 담수지 보전방안 -시시츄카 큰연못을 사례로」(담수지 심포지움) (2004)

- 모니터링 조사와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시시츄카 동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함과 동시에 향후 동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보전목표와 보전대책에 대한 「시민참여 모니터링에서 살펴보는 동산의 보전대책」-시시츄카 동산을 사례로(2005) 등이 있다. 또한 (사)농촌환경정비센터, 고세(古瀬)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모임과 우리 모임과의 공동주최로 「전국 『농경학교』 포럼 in 이바라키」를 2003년에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수시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보전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③ 동산을 보전·재생하는 활동

농업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방치된 숲, 밭, 논이

증가하고 쓰레기 방치도 발생하면서 동산이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한 동산작업 자원봉사단 「동산정비단(里山さわやか隊)」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숲의 식생관리

1989년부터 지주와 협력하여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숲의 잡풀제거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생물종류가 많아지면서 상쾌한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점차적으로 작업하는 숲의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 대나무숲 정비

맹종죽림(죽순대림)의 잡식이 위협이 되고 있다. 대나무 벌채 등의 일부 대나무숲 정비에 임하고 있다.

• 수로 정비

용수로 주변의 잡초제거, 바닥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비된 수로에 참가막조개와 미꾸라지 등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수변놀이공간으로 되 돌아왔다. 또한 예전에 사용되었던 수로를 복원하여 주변에 습지환경을 조성한 결과, 멸종이 염려되었던 잠자리 종류가 다양해졌다.

• 비오톱으로서의 담수지 정비

시시츠키 큰연못은 넓고 깊은 못, 비오톱 못(가시연 못, 주변에 오리나무가 있는 못, 표주박형 못)과 좁고 얕은 못 등 못의 형태에 의해 생식하는 생물 유형이 다르다.

• 쌀 주인제의 실시

경작조건이 불량한 야츠 논에서 농가가 쌀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민이 출자하여 쌀을 매수하는 제도를 제정하였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황폐화된 논을 재정비하여 경작을 시작하는 지역 농가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경작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주인제도의 위상 그림1 참조)

• 휴경 논의 잡풀제거

경작을 포기하여 사람 키가 훨씬 넘는 잡초로 뒤덮인 야츠 논을 대상으로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침층이 풍부해진 휴경논을 매가 철새 이동시 먹이처로 활용하게 되면서 야츠 지역의 농촌경관이 회복되고 있다.

• 휴경 논밭의 복원과 이용

농학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 농가의 협력을 받

아 벼농사를 배우는 「농경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예전에 재배하던 지역특화 쌀 품종인 타로우베이 찰쌀과 고대미를 유기농으로 경작하고 있다. 관련 경작 작업에는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보이 스카웃, 장애인 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고 있다. 밭에는 「동산교류의 농원」 「수유나무 농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임의 회원들이 분담하여 경작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지도를 받아 콩 등 수확물에 대한 가공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숲과 담수지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낙엽, 연꽃가지등은 퇴비로 땅에 환원하고, 목재를 활용하여 버섯 재배도 추진하고 있다.

• 담수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야생 연꽃의 증식, 블랙바스(Black bass)등 외래생물이 담수지의 생물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1990년부터 연꽃 벌채를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츠쯔우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꽃의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003년에 3,800㎡의 수변 연꽃과 마름을 제거하였다. 2004년에는 시험적으로 담수지의 물을 방출하여 외래어 포획작업도 실시하였다.

• 이동통로의 풀베기와 정비

관찰로 풀베기, 관찰로 조성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멸종위기식물 「가시연」 계통 보전대책의 시행

시시츠키 큰연못은 가시연의 태평양측복방생육한계지이나 최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시시츠키산 가시연의 계통 보존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 쓰레기 제거

시의 협력을 얻어 대형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발견되는 즉시 회수하고 있어 지금은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아이들, 젊은이, 시민에게 동산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 - 환경교육활동

동산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생물과 접하면서 흙과 친해질 수 있는 경험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가치있는 일이다. 이러한 동산의 교육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관찰모임 실시

연간 8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몇십만명이 참

가하고 있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뱀, 버섯, 지렁이, 수초 등 테마별로 관찰모임, 놀이를 통하여 자연을 배우는 「어린이 탐색단」, 토요일관찰회 등

● 이벤트 개최

199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동산의 봄을 즐기는 모임」에서는 꽃전, 풀떡 등과 같은 봄의 산물을 즐긴다. 「수확제」 때에는 농경학교와 교류의 농원에서 수확한 쌀, 떡, 고대미, 야채, 버섯 등을 먹거나, 지역협력을 받아 전통음식의 재현, 벚꽃세공, 옛 놀이, 조몬 토기 체험, 지역 주민에 의한 피리와 북 연주 등을 즐긴다. 350인 이상 참가

● 학교교육, 생애교육과의 연계

「환경교육부문모임」에서는 학습방법,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교외수업, 구민관 등의 야외학습에 동산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현장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시시츄카 초등학교는 모임과 연계하여 야쓰 논에서의 쌀 경작, 가시연을 보살피는 활동, 동산 학습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 100여명이 안되는 소규모이지만, 2000년 이래, 동산등을 테마로 한 벽보만들기로 「아이들 에코모임 전국 페스티벌」에 3번이나 현의 대표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환경대신 표창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학생모임의 수용 및 지원

도쿄 환경문제 모임의 대학생들이 매월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회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경작 작업, 숲 관리, 새끼줄 및 짚신 만들기, 곤약 만들기 등을 체험한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들은 동산의 자연과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를 배우면서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 대학, 전문학교등에서의 수업·실습 시행

호세 대학, 츠꾸바 대학 등의 실습수업 시행. 츠꾸바대, 이바라기대, 릿쇼우대, 토기와대 등의 학생, 원생의 논문작성에 협력. 동경농업대학, 츠꾸바학원 등에서의 강의, 수업 담당. 에도가와대, 키누간호전문학교 등의 인턴쉽 시행

● 광고활동

매월 회보 「고코마티 연락」(월간16장), 어린이용 광고지 「시시츄카 큰연못의 소식」(년11회, 1만6천부씩 배포), 리플릿, 각종 팜플렛 등 발행, 1999년부터 홈페이지 운영.

⑤ 관련 단체와의 연계

- 일본자연보호협회, 동경대학 보전생태학연구실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연환경조사와 보전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지구의 날 츠꾸바(츠꾸바시, 지역 시민단체 약30단체, 기업에 의한 환경활동) 사무국 담당
- 츠찌우라·츠꾸바, 두개시의 교육위원회와 연계
- 이바라기현 「아이들의 생생 자연체험 필드 100선」(현교육청선정)에서는 우리 모임이 접수 창구로 되어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아이들이 자연과의 교류를 친밀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시츄카 동산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보전되는 것을 염원하며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근교의 동산 보전」이라는 의의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시츄카 동산의 보전 목적, 수법을 강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마을만들기로 발전되어 추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림3 참조)

결 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관찰모임, 생물 조사, 동산과의 삶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 지역 가치를 재인식하고, 숲과 담수지의 관리 작업, 농경 작업을 실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확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여유, 휴식, 삶의 보람, 정보 교육, 지역생활의 지혜, 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협력과 이해를 얻으면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행정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 지역의 영속적인 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가가 생업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고, 이것이 다시 시민에 의해 지지되면서 그것이 유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그 지역의 가치와 특징을 살리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는 시시츄카 동산을 주변 츠꾸바산, 시시츄카, 가스미카우라 등과 에코로드 구축을 위한 중간 거점으로 위상정립하여, 장래적으로는 일본 열도를 녹지회랑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보 발신, 여론 형성의 장으로 키워면서 동산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감사의 말

시시즈카의 자연과 역사의 모임 발족 때부터 다방면으로 지도해주신 와시다니 이즈미, 모리야마 히로시, 이토 카즈유키, 미네다 타쿠야, 오이가와 타케히사, 그리고 모임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모임의 출판물(서적)

1. 「시시즈카지역 자연환경조사보고서」 (1995)
2. 「어떤 곳일까? 시시즈카 동산」 (1999)
3. 「동산과의 삶 츠찌우라시 시시즈카 -인터뷰편」 (1999)
4. 「동산과의 삶 츠찌우라시 시시즈카 -인터뷰 속편」 (2005)

## 수상력

1. 2005년 이바라기현 표창
2. 2005년 제5회 누마타 마코토상 : 일본자연보호협회, 고향만들기상
3. 내각총리대신상 : 내일의 일본을 만드는 협회, 요미우리신문사등,
4. 수환경문화상 : 일본수환경학회,
5. 전원자연재생경연 아사히신문사상 : 농림수산성 · 농촌환경정비센터 · 환경성, 아사히신문사등,
6. 「녹지의 날」 자연환경노동자 환경대신표창 : 환경성
7. 2004년 일본 里地里山30-보전활동컨테스트 : 요미우리신문 · 환경성,
8. 2003년 복지 · 문화단체 縣彰 수상 : 县要신문 후생문화사업단
9. 클럽상 : 소름티미시스 일본재단
10. 2002년 제9회 마이타운 맵 쿤쿨 실행 위원회 · 정보처교육연수조성재단
11. 2000년 농경학교 기획상 : 농촌정비환경센터
12. 1995년 장려상 : 이온 환경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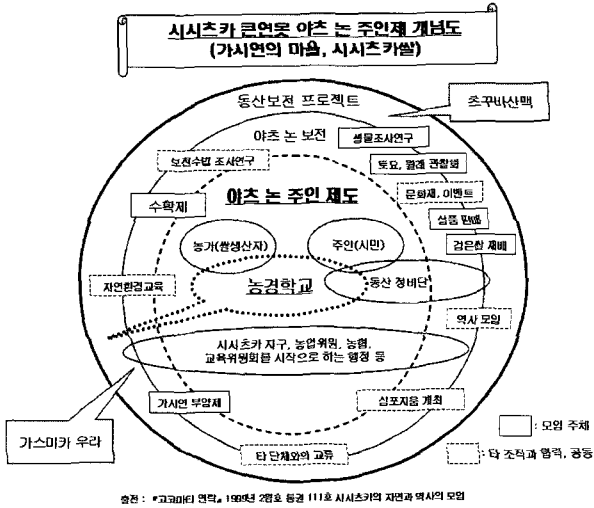


그림 1

### 「동산에서의 삶」 출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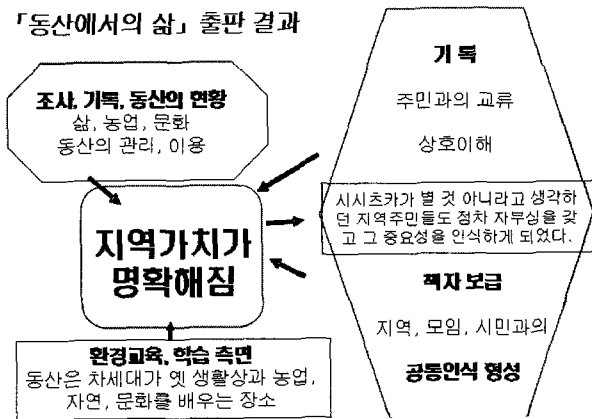


그림 2

### 「도시근교 동산 보전」 국가 정책에 의한 위상정립, 보전목적 및 사회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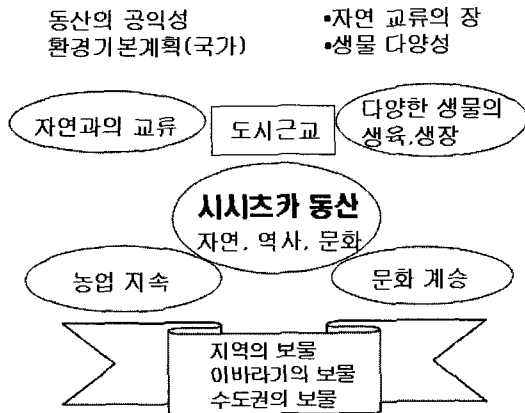


그림 3.